

# 창단공연 부산현대무용단

걱정하나. 기쁨은 주뭇받는 날이고 싶다

토. 항훈의 노래

빙그레시대

- 1988. 4. 20 P.M 7:30
- 산업대학교 콘서트 홀
- 주최/부산현대무용단
- 기획/빙그레 레크레이션 연구소
- 후원/한국기업교육원  
로또서면대리점

## ■ 스텝

예술감독 : 정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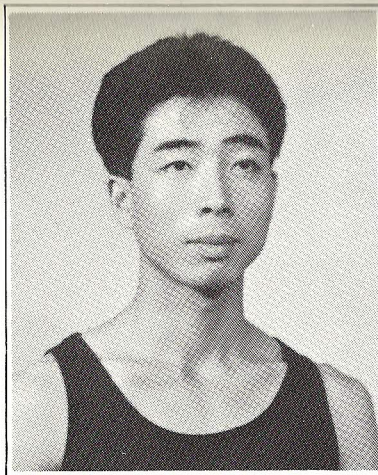
안 무 : 서영희

홍순미

김진우

조 명 : 김장태

의 상 : 배용



## 김진우

- 부산현대무용단 단원 대표
- 부산대학교 졸업
- 정귀인현대무용단 공연 다수 출연
- 제 5회 신인무용제 출연
- 현. 김진우현대무용 학원장

## 인사말

저녁하늘 마지막 빛을 그으며 사라져가는  
햇살의 여운을 바라보며  
저기 높이높이 하늘에 정념을 띄워  
날아보고 싶었던 열망.

여기 강한 학구열과 말없이 실천만으로  
묵묵히 기량을 닦아온 젊은이들이  
「부산현대무용단」이라는 명목아래에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비록 작은 꿈이라도 사랑과 고통의 체험으로  
걸러진 우리의 소산입니다.  
우리의 이번 창단공연이 사람들의 가슴을  
적셔주는 샘물이 되고 생명과 구원의 사명을  
담은 무용예술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도움 바랍니다.  
부산현대무용단이 있기까지 가르쳐주신  
정귀인교수 그리고 도움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 I 부

## 가끔은 주목받는 생이고 싶다

안무 : 서영희  
음악 : URUBAMBA  
출연 : 김경미 김수미  
이정희 공상은

### 선언 또는 광고문안

단조로운 것은 생의 노래를 잠들게 한다.  
머무르는 것은 생의 언어를 침묵하게 한다  
人生이란 그저 살아가는 짧은 무엇이 아닌 것  
문득-스쳐 지나가는 눈길에도 기쁨이 넘치나니  
가끔은 주목받는 생이고 싶다. CHVALIER

### 개인 또는 초상화

벽과 벽사이 한 女人이 있다 살아있는 몸이 절반쯤만  
세상에 노출되고, 눌러 쓴 모자 깊숙이 감춘 눈빛을 허리를  
받쳐들고 있는 한 손이 끄을고 가고.

### 빛 또는 물결

짝짝이 여자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다.  
짝짝이 코 끝에 영롱한 스포트 라이트의  
구두발자국

-오규원 시집 中-

## 황혼의 노래

안무·출연 : 홍순미  
음악 : GEORGE WINSTON 외

현실 사회에서의  
황혼의 언저리엔  
침잠한 바다 저 수평선엔  
에이는 듯한 삶의 일부분이 있다  
이글거리는 태양 빛은 어느새  
섞여가는 살갓과 더불어 저물어 가고 있다.

# 리포서대

안무: 김진우  
음악: ANDREAS VOLLENW  
EIDER 외  
출연: 서영희 홍순미  
김경미 김수미  
이정희 공상은  
임현미 황지현

어두웠던 긴 한 해 였다  
암흑 속에서 빛을 갈구하는 이의  
간절한 소망처럼,  
온 피부에 따가움이 가실 날 없는  
아픔 속에서  
이제는 세월속에 묻혀버린 날들을  
지금 우리는 얘기하고 있다.  
지난 해의 아픔이 컸던만큼,  
새해의 소망은 더욱 간절하고  
험난한 세파에 모두가 시달려도  
허실과 가식의 사회에 모두가 두리번 가렸어도,  
어지러운 세상에 모두가 어지럽게 돌고 있어도,  
우리의 맥을 잃지 않으려 무던히도 질퍽대며  
뛰어 다녔다.

지난 '87년도.....  
무수히도 많은 아픔과 격동을  
겪으면서  
진정한 삶과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다.

# 출연자



서영희

- 부산현대무용단 단원
- 부산대학교 졸업
- 정귀인현대무용단
- 공연 다수 출연
- 남성국민학교 무용강사

홍순미

- 부산현대무용단 단원
- 부산대학교 졸업
- 정귀인현대무용단
- 공연 다수 출연
- 제 5회 신의무용제 출연
- 현. 홍순미무용스튜디오





김 경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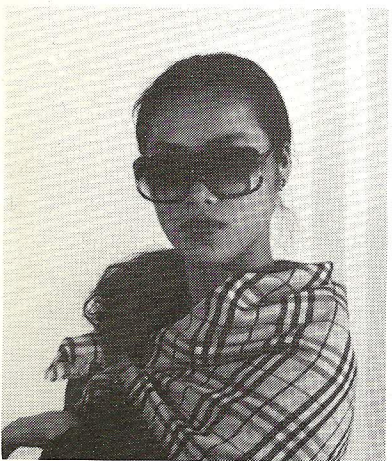
김 수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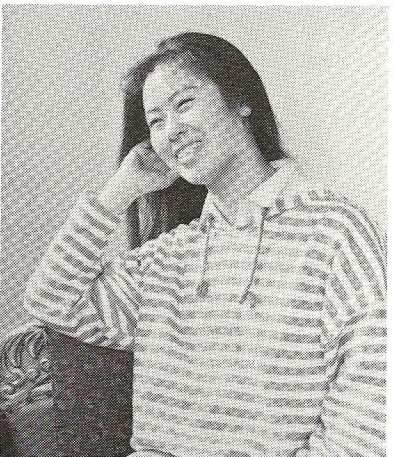
이 정 희



공 상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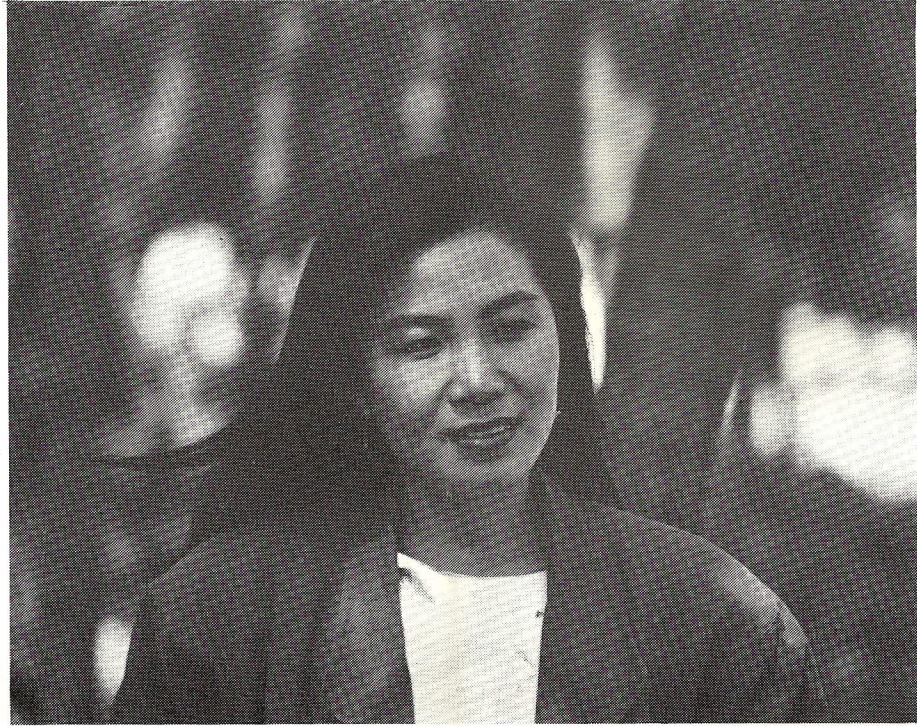


황 지 현



임 현 미

# 감독의 변



## 성실한 춤꾼에게 박수를 보내며.....

정 귀 인

해운대의 아름다운 초록빛 바다와 동백섬의 푸르름이 다시 되어 서로 화답하는 새봄에 젊은 봄의 춤꾼들이 그들의 첫 춤판을 펼치려 합니다. 이들 성실한 춤꾼들은 새봄에 새로 심은 나무처럼 지금은 여리고 미숙하지만 뜻뜻한 신선함으로 보아 멀지않은 훗날, 뿌리를 깊게 내린 부산의 거목으로 성장할 것이며, 이윽고 무성한 가지와 잎을 드리워서 많은 이들에게 포근하고 싱그러운 예술의 향기와 그늘을 줄 것입니다.

부산현대 무용단이 모진 해풍에 견디며 푸르름을 더해가는 금정산의 소나무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격려와 용기의 물을 듬뿍 뿌려주시기 바랍니다.